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말라기 3, 1-4	제2독서	히브리서 2, 14-18	복음	루카 2, 22-40
--------	------	------------	------	---------------	----	-------------

“봉헌생활이 꼭 수도자의 길만은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모 마리아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치르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날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대전에 바친 수도자들을 비롯한 봉헌생활자들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다양한 봉헌 생활의 케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 먼저 성모 마리아는 성자의 어머니가 되라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자신이 꿈꾸었던 미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종으로서, 성자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요청되는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며 사셨습니다.

㉡ 요셉 성인은 약혼자의 임신으로 당황하며 파혼을 결심했으나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성가정의 가장이 되어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성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 시메온의 인생 행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의롭고 독실하게 성령 안에 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 뵈울 것을 오랜 세월 간절히 기다려 온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소망했던 대로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송합니다.

㉣ 한나는 예언자로 소개가 됩니다. 혼인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청상(靑孀)과부가 됩니다. 한자를 뜯어보면 여자가 청춘에 혼자된, 청춘에 서리를 맞다는 뜻입니다.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살면서 성전에서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겨오다가 극적으로 아기 예수님과 상봉하게 됩니다.

이분들에게서 보듯 하느님께 봉헌하는 모습들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각기 상이한 형태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충실히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이한 방식으로

불러주신 소명에 불만을 갖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여 낙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불러주신 하느님과 자신이 받아들인 소명에만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하느님께 인정받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고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봉헌생활자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봉헌생활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먼저 평생을 하느님께 봉헌할 것을 서약하고 청춘을 바쳐 수도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관상수도회와 활동수도회의 일원이 되어 일평생 봉헌생활을 합니다.

수도회 외에도 봉헌생활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결혼생활을 하다가 수도회의 제3회원이 되어 수도회의 정신을 따라 봉헌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재속회(在俗會)도 있습니다. 재속회는 세속에서 살면서 각자의 직업을 갖고 사도직활동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외 독신으로 살면서 혹은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봉헌의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소선교사들이 있고, 해외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도시 빈민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정의·평화와 생명·환경 살리기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긴 세월 수인사목이나 사회복지시설들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봉헌생활의 길은 수도생활만은 아닙니다. 지금 나의 환경에서 찾아갈 수 있는 봉헌생활을 시메온과 한나의 삶에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수도회외의 여러 봉헌생활들의 모습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봉헌생활의 길을 찾아 거기에 충실하게 살 수 있다면, 분명 더 행복한 인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봉헌생활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복음의 시메온과 한나처럼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2월4일(화)	연중 제 4주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헌금	\$ 1,287.00
			교무금	\$ 3,245.00
2월5일(수)	성녀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	오전 8시	도네이션	\$ 600.00
2월6일(목)	성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오후 7시30분		
2월7일(금)	연중 제 4주간 금요일	오전 10시		
2월8일(토)	연중 제 4주간 토요일	오후 7시30분	합 계	\$ 5,132.00
2월9일(주일)	연중 제5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8명 성인: 174명
교무금 봉헌자	김동현(1-6) 진엘리사(1-5) 장애익(1-4) 김승제(1-3) 류승교(1-2) 윤영자, 김운태(2) 권영일, 김은영, 김주동, 임복순, 조영진(1) 김옥동(10-12/2024) 손명화(1-12/2024)			

◎신앙생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사도란 무슨 뜻인가요?

열두 제자만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불러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르 3,13-19; 마태 10,1-4; 루카 6,12-16).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바오로나 바르나바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사도 14,14).

사도란 그리스어 '아포스톨로스'(αποστολος)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아포스톨로스는 '보내다', '파견하다'는 뜻을 지닌 동사 '아포스텔로'(αποστελλω)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원래 사절, 특사 같은 일반적 의미로 사용됐고 종교적 의미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사도란 말이 80번가량 나올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파견된 사람'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복음서 가운데 마태오·마르코·루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구조와 내용이 비슷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고 파견하신 부분을 공관복음서(마태 10,1-4; 마르 3,13-19; 루카 6,12-15. 또한 마태 10,5-15; 마르 6,7-13; 루카 9,1-6)에서 보면 공통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파견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이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도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신 제자로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받아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파견된 사명을 띤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가 증언하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뽑으신 사도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라는 뜻에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대오, 열혈당원으로 알려진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런데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는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 대(大)야고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알패오의 야고보는 소(小)야고보가 되겠지요. 또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뒤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아 마티아를 사도로 선택하지요(사도 1,15-26).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다. 사도는 이 12사도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는 바오로와 바르나바에 대해서도 사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르나바는 사도들의 증언에 감화를 받아 자기 밭을 판 돈을 몽땅 사도들에게 바친 인물로(사도 4,36-37), 나중에 바오로와 함께 이방인 선교를 위해 사도들에 의해 안티오키아로 파견됩니다(사도 15,22-35).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오로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파견됐다는 점을 신약성경 서간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예를 들면 로마 1, 1; 1코린 1,1; 갈라 1,1 등). 바오로가 이처럼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당시 교회에서는 누구를 사도라고 부르느냐와 관련해 논쟁이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에 이른바 '사도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아니든 간에, 성경의 기록과 교회 전통은 바오로를 사도로, 그것도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오로는 자신과 열두 사도 외에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바르나바,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 등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1코린 9,6; 15,7; 갈라 1,19; 로마 16,7 등 참조). 따라서 사도란 열두 사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복음선포의 사명을 맡기신 12제자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오로 사도의 주장에 비춰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 선포 사명을 띤 파견된 이들도 사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기 성인 치릴로(827~869)와 그의 형 성 메토디오(825~885)는 슬라브 민족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분들로 '슬라브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도라고 하면 흔히 12사도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뽑으신 12제자가 대표성을 지니는 사도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화신문 이창훈 기자의 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사무장 201-774-7489/전례부장 916-990-6531)◎

구분	봉 헌 자	지 향	구분	봉 헌 자	지 향
연	서바오로, 류샬비아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생	김평옥 모니카	아들 Shawn Hovey 영육간의 건강
연	김순녀 도미질라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생	이요안나	임준섭 요셉 치유를 위하여
연	박니콜, 박수옥 글라라	권흥주 득인 베드로의 영혼	생	류승교바오로, 류재순 마리안나	대한민국 국정 평화안정을 위해
연	이서향 미카엘라	이옥련 마리아 영혼	생	진엘리사	성다미아노 건강 빠른 쾌유
연	김일주 안나	김기수 안드레아, 서향자 글라라 영혼	생	5구역	성다미아노 건강 빠른 쾌유
생	박율리아	주동숙 모니카 영육건강	생	김두황 다니엘, 김샘이 엘리사벳	김리나 베로니카 첫 생일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초축복식 (주님봉헌축일)

일시: 2월 2일(주일) 미사중에 있습니다.
1년동안 제대에 사용할 초를 봉헌해 주시고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성물방에 신청바랍니다.

2. 외딴 교우 교리 시작

2월 9일 교중미사 후 시작
기간: 부활 세례 전까지
교리: 대부모, 배우자 함께 참석

3.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 6일(목) 저녁8시. 성당
저녁7시(목주기도) 저녁7시 30분(찬미)
저녁8시(미사, 성시간 및 안수예절)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본당 구역장 회의

일시: 2일(주일) 교중미사 후 엘리사벳방
각 구역장님께서서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5. 단체활동

- 2구역: 2/7(금) 김현준 미카엘 맥 (구역미사)
- 5구역: 2/9(일) 미사후 요한방
- 6구역: 2/15(토) 박 벤자민 맥 (5시)
- 7구역: 2/16(일) 사랑의 급식 봉사후 친교실
- 8구역: 2/16(일) 교중미사후 요한방
- 9구역: 2/16(일) 미사후 루카방
- 10구역: 2/22(토) 김두황 다니엘 맥 (5시30분)

연령회: 2일(주일) 교중미사후. 친교실
울뜨레아: 2일(주일) 교중미사후. 구사제관
복지부: 16일(일) 오후 노라플레이스 음식봉사

6. 본당 꾸리아

일시: 16일(주일) 엘리사벳방
각 뵤레시디움 4간부께서는 참석 바랍니다.

7. 주일학교 학부모 회의

시간: 9시 미사후
장소: 친교실

8. 사랑의 급식 안내(창조주의 어머니 뵤레시디움)

일시: 2일(주일) 모든미사
메뉴: 뼈다귀우거지국 금액: \$5
도네이션 하실 분은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9. 주방 공사 관련 회의 안내

주방 공사에 관한 회의를 합니다. 여성단체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참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9 미사 후
장소: 엘리사벳 방

10. 영정 사진 촬영 안내

2월 16일, 23일 미사 후 연령회 주관으로 친교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영정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촬영을 원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공지사항

그동안 리노공사로 후원되었던 사랑의 급식 수익금이 올해부터는 본당 주방 업그레이드 공사 비용으로 후원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본당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달력광고: 서메리 \$300

화답송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Fine

전례봉사	주님 봉헌 축일(2/2)	연중 제5주일(2/9)	연중 제6주일(2/16)	연중 제6주일(2/23)
미사해설	오민정 / 이해련	곽유경 / 최금주	박문교 / 김진영	지혜진 / 전병옥
독서	9시	윤지명 / 박예린	황건영 / 허준희	윤지명 / 박예린
	11시	임정남 / 양방림	안강순 / 이서향	송돈희 / 조용주
복사	9시	지마리 / 허준희	박예진 / 곽아인	김노아 / 오은수
	11시	박지은 / 권오승	윤지현 / 송돈희	김규철 / 김영준
헌금위원	천상의 모후Pr.	셋별Pr.	창조주의 어머니Pr.	천상의 모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김나윤 프리스카(201-774-7489) E-Mail:prisca0118kim@gmail.com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1.2.3 Auto

정비/수리/각종부품교환
바디 수리/판금/페인트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916-807-4886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6509 Fruitridge Road
65th Street
Sacramento, CA 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HEZ JULIA

HANDMADE SOAP & CANDLES

*** 쉐 줄리아 공방 ***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https://www.instagram.com/chezjulia_banheemom)

박지은(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된장.도토리 국수.참기름.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